



총회교육진흥원 보고

1. 2019년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

- 1) 취지 : 2019년 총회교육의 교육주제를 지교회에 전하고 전체 교육의 방향을 알리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통해 중요한 교육의 분야들을 함께 연구하고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 2) 교육주제 : 신앙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대하 24:13)
- 3) 일시 : 2018. 10. 29(월) 10:30-15:10
- 4) 일정표

시간	강의 제목	강사
10:30-10:50	개회예배 (설교 : 교육부장 이양수 목사)	교육부 임원
10:50-11:35	신앙교육 생태계의 정의와 회복의 필요성(위기 진단과 대안)	함영주 교수
11:35-13:05	성경으로 본 신앙교육 생태계 복원의 중심	김희석 교수
	신앙교육 생태계 회복 네트워크 구축과 미디어 활용 방안	김수환 교수
13:05-13:40	점심식사	
13:40-15:10	교사교육 중심의 교회교육을 살려서 신앙교육을 회복하라!	임만호 목사
	가정을 세우는 목회철학으로 신앙교육을 회복하라!	이인호 목사

5)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집필, 교재개발비	14,880,400	강사,순서비,원고료비	3,440,000
온라인등록비 외	1,380,000	인쇄비	1,990,800
현장등록비 외	45,000	홍보비	5,500,000
		행사진행비	5,054,600
		장소사용비	300,000
		환불비	20,000
합 계	16,305,400	합 계	16,305,400



2. 201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교재 개발

- 1) 총주제 : 모세가 들려주는 예배이야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 2) 주제성구 : 신 6:4-9
- 3) 총주제해설

I. 들어가며

신앙교육이란 다음 세대로 하여금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를 넘어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과제가 있다면 예배일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J. K. A. Smith)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규정하면서 “기독교교육은 예배의 실천을 원천과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확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심지어 세계관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배와 관련된 주일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학교 어린이 중 52%가 예배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이벤트 형식의 세속적이고 손쉬운 처방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의 본질과 함께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과 관련하여 조나단 에드워즈(J. Edward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조물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의해 존귀하게 되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즉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9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주제를 “모세가 들려주는 예배 이야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로 정하고, ‘영광’, ‘기쁨’, ‘동행’이란 주제가 스펙터클하게 나타나는 구약성경의 출애굽 이야기를 선택하여 ‘예배’로 조명하고자 한다.

II. 예배 교육의 토대

교육과정의 토대

‘쉐마’ 본문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9절은 예배의 대상,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일상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라는 말씀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강조된다. 이는 1과 내용의 핵심이다. 둘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는 말씀에는 예배자의 태도가 전인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며, 이는 2과의 주제다. 셋째,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6-9절에는 예배자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학습)하며,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기호나 표로 만들어 놓거나 기록하여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는 3과의 주제와 연결된다.

교육과정의 내용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정의 토대를 이루는 말씀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일까? 출애굽 이야기가 그중에 하나다. 특히 교육과정의 토대를 이루는 신명기 본문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며 출애굽 2세대를 교육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애굽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배를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 중에서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3장), 홍해 기적 이야기(15장), 성막의 구름과 불 이야기(40장)를 통해 예배의 대상, 자세, 일상에 대하여 집중 조명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III. 교육과정 해설

1과 예배의 대상(출 3:1-15)

‘예배’를 떠올릴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은 은혜보다 앞서가는 것이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 호렙 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예배는 은혜로 시작된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참된 예배를 명령하신다고 할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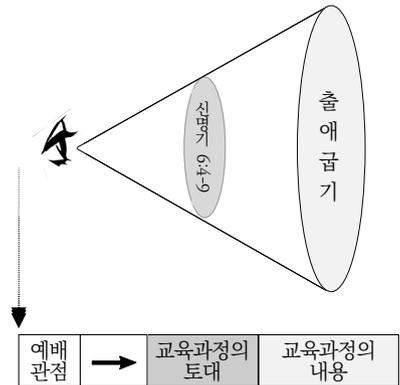
또한 예배는 더 놀라운 예배의 비전으로 이끈다. 호렙 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에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출 3:12)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오늘날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영적 성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하나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는 말씀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거룩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데, 그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도 연결된다. 1과에서는 예배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다룬다.

2과 예배자의 태도(출 15:1-12)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구원 사건의 체험은 그에 대한 반응을 낳는다.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예배다. 2과 본문에서 모세는 성인 남성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이때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 다음, 추격하는 대적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기쁨을 연상하는 ‘노래’(1,2절), ‘찬송’(1,2,11절), ‘소고’(20절), ‘춤’(20절)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타난다. 이처럼 체험은 반응을 낳는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에드워즈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의해 존귀하게 되시며 높임을 받으신다.”는 주장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구원의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로 “높고 영화로우심이요”(1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2절), “용사시니”(3절) 등과 같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묘사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



<그림1> 예배의 관점으로 보는 교육과정의 태도



음”(1절),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4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8절) 등과 같다.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살리셨다. 즉 장애물인 홍해를 가르심으로 살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에 처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즉 십자가를 통해 회장을 가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살길을 열어주신 것이다(히 10:20).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신 6:5) 사랑해야 한다. 2과는 구원의 사건을 생생하게 들려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며, 그 기쁨으로 예배해야 함을 다룬다.

3과 예배자의 생활(출 40:3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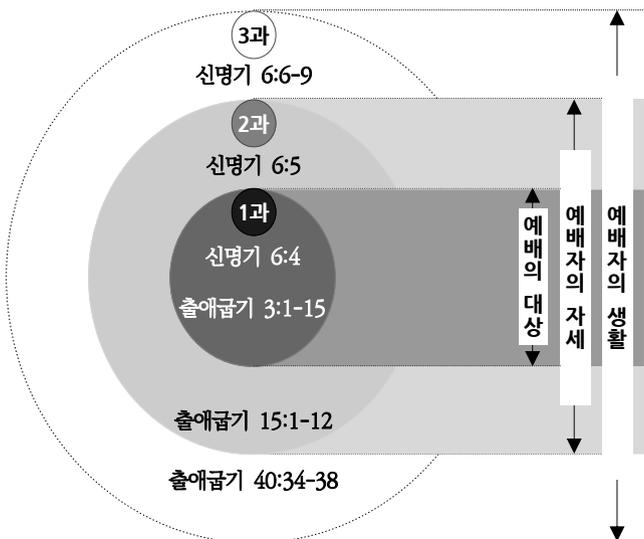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홍해의 기적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감격’으로서 홍해의 기적은 매일의 삶 가운데 재생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시편의 주된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예배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재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건축을 명하셨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매일매일 생활하시기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처소인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로 임마누엘이 실현된 것이다. 실제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성막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중앙에 위치하여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민 2:2).

또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생생한 자리다. 호렙 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연기와 불로 임하셨고(출 19:18),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성막 가운데 구름과 함께 영광으로 임하셨으며(출 40:34-35),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성령으로 임하신다(행 11:15).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요 4:23-24).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가이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출 40:36-38),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두고는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신다(신 6:4).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배우고, 더 나아가 ‘기호’와 ‘표’로 삼으며, ‘기록’하라고 하신다(신 6:6-9).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에 따라 3과에서는 삶의 예배를 위해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룬다. 지금까지 언급한 1, 2, 3과의 핵심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2>와 같다.

IV. 나가기

우리는 예배하는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 대상을 알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갈망(예배)은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지렛대란 다름이 아니라 ‘습관’ 혹은 ‘경향성’이다. 즉 예배를 향한 거



<그림2> 모세가 들려주는 예배 이야기 : 교육과정의 틀

룩한 습관 또는 예배와 연결된 거룩한 경향성을 말한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우리 삶의 거룩한 지렛대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향성은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실천 즉 ‘규칙적인 행동을 몸으로 수행할 때’ 생겨난다. 예배의, 예배를 위한 실천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사이를 이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조상의 하나님”(출 3:6)이란 말씀으로 모세의 잠자던 신앙을 일깨워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일학생들의 현재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더 나은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하며, 예배를 통해 배우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겨울성경학교·수련회 교육자료 중에는 특별히 ‘예배 결심 탈부착 스티커’, ‘예배 서약서’, ‘예배약속 스티커북’, ‘예배 노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2019년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4) 부서별 커리큘럼

부서	주제	과	요절	교육활동
영유아 유치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1과 하나님만 예배해요	신 6:4	가정예배북, 예배출석카드
		2과 기쁨으로 예배해요	신 6:5	
		3과 매일매일 예배해요	신 6:4-5	
유초등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1과 하나님만 예배해요	신 6:4	예배결심카드, 예배기록노트
		2과 기쁨으로 예배해요	신 6:5	
		3과 매일매일 예배해요	신 6:4-5	
중고등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1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6:4	말씀기록노트, 말씀 카드
		2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 6:5	
		3과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신 6:6	
대학 청년부	예배를 리프레임하라	1과 프레임 1. GOD	신 6:4	B.T.S 말씀 읽기
		2과 프레임 2. I	신 6:5	
		3과 프레임 3. LIFE	신 6:6-9	

5) 부서별 집필자

부서	팀장	성경교실 집필자	그림작가	디자인
영유아 유치부	한유완	김은미 송미애 장선희 정현숙 최혜미	최은민	지은
유초등부	나현규	조혜영 김대혁 박지혜 배광우 성초희 이상현 이승연	이은열	지은
중고등부	박상엽	김기홍 김 균 김정현 이웅진 양한규 홍상원	그림책 아저씨	김다은
대학 청년부	천지혁	배준현 김은총 유희성 김효진 조규필 김영운	-	박선영



3. 2019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지도자 컨퍼런스

1) 목적

- (1) 겨울성경학교.수련회 교육자료 제공
- (2) 2019년 부서별 교육목회 프로그램 및 절기자료 보급
- (3) 겨울방학 및 새학기 신앙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2) 개요

- (1) 일시 및 장소 : 2018. 11. 27일(토) ~ 12. 8일(토) 09:00~13:00 17:30~21:30(3차)
 - 1차 11. 27일(토)-수원 더사랑의교회/ 경기지역
 - 2차 12. 01일(토)-대구 대명교회/ 영남지역
 - 3차 12. 03일(월)-서울 사랑의교회/ 서울지역
 - 4차 12. 08일(토)-광주 동명교회/ 호남지역
- (2) 대상 : 노회장, 노회 교육부장 및 교육부 임원, 각 노회 주교련 임원, 주일학교 부서별 교역자 및 교사, 주일학교 교육 관심자
- (3) 참석인원 : 총 450여명
- (4)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집필/교재개발비	21,282,740	강사순서비	4,360,000
등록비	7,845,000	홍보비	10,633,200
		인쇄비	2,690,000
		장소사용비	600,000
		행사진행비	2,274,540
		행사보조경비 출장비	8,350,000
		환불금	220,000
합 계	29,127,740	합 계	29,127,740

4. 201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교재 개발

- 1) 총주제 :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
- 2) 주제성구 : 느 6:16
- 3) 총주제해설

1. 주제 선정 배경 : '나라를 사랑한'

2019년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준비'에서부터 '점화', '전국화'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단적인 예로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으며,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접화한 48인 대표로 볼 때도 기독교인은 24명으로 각각 50%가 넘는다. 특별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회는 준비, 배포, 참여의 과정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3.1독립만세운동은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 민족 전체와 세계만방을 향해 독립의 정당성을 널리 알린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 그 결과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향후 거국적인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3.1운동에 기독교인의 참여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준다. 과거에 비해 기독교인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연계된 자긍심과 역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회교육진흥원은 2019년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주제를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로 정하고, 시대적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는 나라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한다.

II. 가르칠 내용 : ‘느헤미야 이야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성경 역사에서 포로 후기의 상황을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느헤미야’이다. 나라를 잃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형편과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함께 하였다(느 1:2-4). 이는 이 땅과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시 22:28, 롬 17:26) 나라 사랑의 의미와 연결하여 가르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사역이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온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다. 에스라-느헤미야를 통해 볼 때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집’(스 1:4,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것으로 포로 후기 시대의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확장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이 성의 문쪽과 성벽을 ‘성별’한 것(느 3:1), 성벽을 건축한 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성문 문지기로 삼은 것(느 7:1),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느 11:1, 8)이라고 일컫은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하나님 나라로 구체화된다. 즉 포로 후기의 역사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확장되며,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성전의 완공,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벽 재건이 외적 상징물이라면, 언약의 회복을 통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은 내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벽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가 깨진 것을 상징한다면, 성벽 재건은 언약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벽 재건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스라에게 언약의 법인 율법을 낭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느 8:1), 율법 낭독을 통해 언약관계를 확인하였으며(느 9:38),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을 구분하여 축복한 후(느 11:1-2), 성벽 봉헌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느 12:27).

주제에 따른 여름성경학교·수련회 교육과정을 ‘성벽 재건’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느헤미야 구조	성벽 재건 준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		성벽 봉헌과 삶의 개혁	
	1:1-2:10 예루살렘 귀환	2:11-2:20 성벽 탐사	3:1-7:72 성벽 재건	8:1-10:39 언약 갱신	11:1-12:43 성벽 봉헌	12:44-13:31 삶의 개혁
과 제목	1과 성벽 탐사 출발!		2과 프로젝트 52		3과 넥스트 미션	
핵심 본문	느 2:11-17 (1:1-4, 1:11, 2:1-3)		느 8:1-12 (3:1-3, 6:15-16, 9:32-38)		느 12:27-31 (11:1-2, 12:43, 13:15-22)	
포인트	무너진 곳 살피기		무너진 곳 세우기		세워진 곳 지키기	
키워드	보니(사바르 : 시험하다, 조사하다, 점검하다)		중수하다(하자크 : 수리하다, 강하게 만들다)		봉헌(하누카 : 봉헌, 헌납, 성별)	
	관심 > 기도 > 탐사		성벽 재건 > 율법 선포 > 언약 갱신		거주함 > 봉헌 > 개혁	

1과 성벽 탐사 시작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성벽 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산 궁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은밀하게 살피는 것이었다. 무너진 곳이 어디이며,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성벽 재건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깨어진 언약관계로 인한 언약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라고 할 수 있다. 1과에서는 ‘나’, ‘가정’, ‘교회’, ‘나라’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에 집중한다.

2과 프로젝트 52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영역을 맡아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한다. 성벽은 ‘하나님의 집’의 외적인 상징물이라면, 내적인 실체는 언약 공동체이다. 성벽 재건이 회복의 외적 표징이라면, 언약백성으로서의 내적 회복은 언약관계의 회복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요청한다. 또한 에스라의 율법 선포와 함께 언약관계를 확인하고 다짐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들을 때, 울며 죄를 자백했다. 이는 언약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2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가정’, ‘교회’, ‘나라’와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시도한다.

3과 넥스트 미션

성벽 재건 후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다. 이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 그러자 지도자 느헤미야는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찬양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을 진행한다.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왼쪽으로 행진하여 하나님의 전까지 이른다. 성벽의 ‘봉헌’은 ‘하나님의 집’의 완성과 언약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 중의 어떤 이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십일조를 내지 않거나,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등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다시 개혁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개혁과 회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3과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여름성경학교·수련회의 ‘미션 52’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동참을 이끄는 데 집중한다.

III. 구체적 과제 : ‘미션 52’ [작은따옴표 위치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미션 52’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들(교역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다.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의 무리들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다. 52란 숫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 날수에 불과하지만, 교육적 실천을 위한 상징적인 숫자로 의미 부여하였다. 여름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한 구체적인 미션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특별한 기도로 시작했고, 또한 기도하며 성벽 재건이 진행된 것처럼, 교역자의 기도(21일), 교사들의 기도(14일), 학부모의 기도(10일) 그리고 학생들의 기도(7일)가 어우러져 기도 ‘미션 52’를 완성하도록 제시한다. 각 부서별 학생용 교재의 3과 적용이 바로 ‘미션 52’와 연계되어 있다.

IV. 미션 수행 방식 : ‘우리 함께 세워요’ [작은따옴표 위치 확인해주세요.]

‘우리 함께 세워요’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느 8:1)라는 말은 에스라-느헤미야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는 신명기의 경우를 통해 볼 때 수령,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와 여자, 유아까지 포함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신 29:10-15). 100년 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집중적으로 2개월, 간헐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의 조직적인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년 총회 여름성경학교·수련회는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고자 한다. 즉 교단 산하 총회교재를 사용하는 모든 교회의 교역자, 교사, 학부모 및 어린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52일 동안 기도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곱째 달, 즉 7월에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선하신 주님께서 2019년 뜨거운 7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수행할 ‘미션 52’를 통해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한다.

4) 기획, 집필, 제작, 일정

월	일	주교재	멀티자료	찬양운동	컨퍼런스	홍보
1	7	총주제 회의				
	14	총주제 선정				
	21	기획 회의	기획 회의	작사/작곡 의뢰		
	28		업체 선정			
2	4	학생용 집필의뢰 매뉴얼 집필의뢰	시나리오 및 내용 집필	작사 심사 작곡 완료	기획하기	
	11		그림 의뢰	편곡 의뢰	장소 섭외	
	18	학생용 워십 학생용 편집의뢰	멀티 1차 작업	가이드 음원 완성	강사 섭외	
	25	교사용 집필의뢰 매뉴얼 집필의뢰	멀티 1차 편집	찬양 및 율동 연습		
3	4		멀티 2차 작업	음원 녹음		홈페이지 세팅
	11	교사용 편집의뢰 매뉴얼 편집의뢰	멀티 2차 편집	최종 마스터링	홍보	홍보 영상
	18			율동 촬영		찬양 음원



	25	감수 및 교정	ppt 작업	운동 촬영		교재 홍보
4	1		ppt 작업	영상 편집	컨퍼런스 접수	
	8		서식 디자인	영상 편집		찬물 홍보
	15	학생용 이양	서식 디자인	제작 완료		신문 연재기사
	22	교사용 이양		데이터 이양	컨퍼런스 준비	
	29	매뉴얼 이양	USB 데이터 이양		신학교 홍보	

5) 부서별 커리큘럼

부서	주제	과	요일	교육활동
영유아부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	1과 도리도리 살펴요	겔 16:60	필름지 놀이 성벽 세우기 풍선 마이크
		2과 영차영차 세워요		
		3과 아멘아멘 지켜요		
유치부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	1과 요기조기 살펴요	겔 16:60	필름지 놀이 성벽 세우기 풍선 마이크
		2과 똑딱똑딱 세워요		
		3과 으샤으샤 지켜요		
유년부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	1과 기도하며 살펴요	시 18:28	필름지 놀이 벽돌카드게임 성벽연필꽃이
		2과 말씀으로 세워요	겔 16:60	
		3과 삶으로 지켜요	딤후 4:16	
초등부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	1과 유튜브 탐사대 출발	시 18:28	벽돌카드게임 성벽블록 토퍼
		2과 유튜브 채널 52	겔 16:60	
		3과 유튜브 넥스트 미션	딤후 4:16	
중고등부	LET's BUILD IT UP	1과 Searchers-찾는 사람들	느 1:5	솔라리움카드 성벽 세우기 지킴약속
		2과 Builders-세우는 사람들	골 1:28	
		3과 Keepers-지키는 사람들	빌 1:6	
대학 청년부	BUILD UP	1과 Heart	-	콜라보에세이 토론토론
		2과 Harmony	-	
		3과 History	-	

6) 지도자용 매뉴얼 집필자 명단

부서	팀장	집필자	그림작가	디자인
영유아 유치부	한유완	김은미 김정은 김희정 우경신 장선희 장은숙 정현숙 박순근 박영주 정현희 광미경 김미진 김숙진 김지연 남기숙 송미애 여명주 윤이나 원은진 이지영 최혜미	최은민	지은
유초등부	문성광	김대은 김우진 김지연 노태진 박유정 박지혜 성초희 유용식 이상현 이승영 조성공 조혜영 채희성 최민홍 최보람 황성구 황성국	최은민	지은
중고등부	김현지	강대주 강용진 김솔로몬 이승범 이준혁 조진형 천주찬 천다니엘 홍상원	-	김다운

7) 성경교실 집필자 명단

부서	팀장	성경교실	그림작가	디자인
영유아부	한유완	김정은 우경신 장선희 장은숙 정현숙 황정미	최은민	지은
유치부	김은미	곽미경 김미진 김지연 남기숙 송미애 여명주 윤이나 원은진 이지영 최혜미	최은민	지은
유년부	노태진	김지은 이승영 조성공 정혜진 채희성 최보람	최은민	생기
초등부	문성광	김지연 김태훈 이상현 조혜영 황성구 황성국	최은민	하숙경
중고등부	김현지	강대주 이승범 이준혁 조진형 천주찬 홍상원	그림책 아저씨	김다운
대학 청년부	천지혁	김은총 박상엽 배준현 김명윤 유희성 김효진	-	박선영

8) 찬양율동 관련자 명단

부서	작사	작곡	율동창작
영유아 유치부	김대열 김예나 김수진 김은미 김은총 김정은 김효진 김희영 나현규 남기숙 남기욱 노태진 문성광 박상엽 이라니 장은숙 천지혁 한유완	김대열 김은태 김혜능 박형준 안재중 여유미 이라니 이종익 이찬형 전경은	김계화 김은희 김효진 윤다현 이무궁화 조한글 조현주 홍은영 양창운 우윤지
유초등부			

5. 201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지도자 컨퍼런스

1) 목적

- (1) 여름방학 신앙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 (2) 효과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 보급
- (3) 하반기 신앙 프로그램 보급

2) 개요

- (1) 일시 및 장소 : 2019. 5. 7일(화) ~ 18일(토) 17:00 ~ 21:30 / 08:30 ~ 13:20(3차, 5차)
 - 1차 7일(화)-대구 범어교회/ 영남지역
 - 2차 9일(목)-대전 태평중앙교회/ 중부지역
 - 3차 11일(토)-서울 충현교회/ 서울지역
 - 4차 16일(목)-광주 광주동명교회/ 호남지역
 - 5차 24일(목)-수원 더사랑의교회/ 경기지역
- (2) 대상 : 노회장, 노회 교육부장 및 교육부 임원, 각 노회 주교련 임원, 주일학교 부서별 교역자 및 교사, 주일학교 교육 관심자
- (3) 참석인원 : 총 2,170여명



(4)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비 고	
등록비	사전카드	18,092,000	강사순서비	6,230,000	전지역 개회예배 및 공과 강의
	사전계좌	43,640,000	홍보비	6,592,140	문자충전, 홈페이지, 페이스북홍보, 기독교신문 후기공모전 홍보
	현장카드	10,400,000	인쇄비	2,385,900	현수막, 전단지, DM 발송비
	현장현금	4,291,000	장소사용비	1,000,000	전지역
		공과구입비	37,939,185	전부서 교재(5,518권), 왕의 명령(214권)	
		행사진행비	6,606,230	강사접대, 참가자간식, 알바비, 교재발송 및 반송, 유류비, 톨비	
		출장비	11,090,000	숙박비, 식비, 수고비	
		프로젝트비	2,400,000	외부 연구원 인건비	
		카드결제 수수료	636,845	카드결제 수수료	
		환불금	1,542,700	취소자 환불, 반품착불비	
합 계	76,423,000	합 계		76,423,000	

6. 2019년 장년·구역·노년 교재 발행

부서	주제	학기별 내용
장년부3	언약과 믿음	1학기 언약과 믿음
		2학기 권세 있는 가르침
		3학기 평화의 왕 메시아
		4학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역	교회, 하나님의 기쁨	1학기 교회와 성경
		2학기 교회와 성령
		3학기 교회와 역사
		4학기 교회와 세상
노년부4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1학기 내면을 돌아봄 - 마음 관리
		2학기 건강을 살피봄 - 건강 관리
		3학기 주를 바라봄 - 신앙 관리
		4학기 다 같이 함께함 - 관계관리

부서	과별 집필(개정)위원	디자인
장년부3	김창현 고석찬 장경근 홍문수	최은숙
구역	김대훈 김범선 김재철 류명렬 맹일형 박재신 박은식 윤영민 이규현 이인호 임종구 홍문수 홍석기 홍승영	최은숙
노년부4	김병수 김형권 노현균 박종남 서용민 손창순 안성민 오성수 이영신 전인식 주연중 지대현 최세호	하숙경

7. 총회 통합형 공과 발간 계획

1) 총회 통합형 공과 개발 방향



- 첫째, 기독교세계관으로 교회-가정-학교(세상)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교육 시스템 구축
- 둘째,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교재를 연계하는 스마트 러닝 개발
- 셋째, 예배-설교-공과(활동) 주제의 통일성으로 원포인트 주일학교 설계
- 넷째, 주일에 성경을 잘 배워 평일에 성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삶-지원 프로그램 개발
- 다섯째, 주일에 동일 성경 본문으로 부서-세대 간 신앙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

2) 총회 통합형 공과 총론

총회 통합형 공과 개발 개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999년 [말씀, 믿음, 삶]이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2011년에 발행된 [생명의 빛] 성경공부 교재는 현대사회의 필요에 맞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런 현장의 필요에 반응해서 개발된 교재들은 총회 산하 교회들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었고,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교회 내부의 여러 위기는 신앙교육의 과정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반면,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대이므로, 두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도 시대에 적절한 교육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성경공부 교재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일치한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다. 비록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배제한 구약성경의 교재는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

신약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언약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막 1:15, 눅 4:43).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마 3:16-17).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다(눅 8:1-3).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교훈 속에도 포함되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표현하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마 5:3-10).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체화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현실화된 것으로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실체를 의미한다(엡 1:22-23).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상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 실재(實在)하는 현실이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월성과 내재적 차원이다(눅 17:20-21).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서 진행되었는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현실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초월적인 개념에서 발생한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이번 성경교육 교재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지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시대의 큰 교육생태계인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 인간상, 관련 성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재명(가칭)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리스도인
교육이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
교육목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한다. (성경) - 인지 2.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리와 역사를 통해 깨닫도록 한다. (교리) - 인지, 정서 3.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성품) - 정서, 행동 4.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깨닫고 실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한다. (세계관) - 행동
교육과정	6년 교육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성경 파노라마(3년 교육과정) 2.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리(1년 교육과정) 3.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1년 교육과정) 4.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관(1년 교육과정)
인간상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제성구	마태복음 5:13-16

▶ 교육이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

교재의 명칭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리스도인”(가칭)으로 정한다면 교육이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학습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두 가지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전자가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의 교육이라면, 후자는 성경 내용을 적용하는 교육이라 하겠다.

▶ 교육목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교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성경공부 교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기본 주제로 한다. 그렇다면 학습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더불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속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힘써야 할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의 수행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교육목적을 성취하고 현장에 실현되도록 구성할 것이다.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교육목표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인 목표를 정하고, 각각의 교육목표는 교육과정 내에서 명확히 성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교육은 과정과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과정과 결과의 성취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교육목표이다. 교육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하며, 그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은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역사적 파노라마를 요약, 신약성경을 통해 알게 한다”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의 역사적인 파노라마가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 학습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첫 번째 교육목표는 주로 인지적인 교육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3년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성경의 생생한 주제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리와 역사를 통해 깨닫도록 한다”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이해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고 역사 속에서 어떠한 발전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교리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며 주로 인지적·정서적인 교육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목표를 잘 내면화시키도록 성경에 근거한 1년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화하도록 한다”이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한 학습자들이 매일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 교육목표는 정서적·행동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목표를 잘 실현하도록 1년의 성품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깨닫고 실천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한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이는 주로 행동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1년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관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삶의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 전도와 선교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 인간상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인간상은 인재상이라고도 불리는데 교육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빚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컫는다. 기본적으로 기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재상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로 설정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기독교가 정체를 지나 쇠퇴의 기류에 휩싸여 있고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학습자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아 소위 이원론적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배우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문화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점점 더 초정보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미래사회를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디지털 문화환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말씀의 빛 아래 순종하는 인재 길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성경공부 교재는 삶이 모든 영역에서 이원론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인재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인 인간상은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주제성구

“마태복음 5:13-16”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은 소위 ‘팔복’의 내용이 전반부에 등장한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여야 한다. ‘궁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 주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더 나아가 SNS 공간에서도 밝히 비추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마 5:16)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 나가야 한다.

▶ 104회기 주요사업 계획보고

번호	항목
1	총회 교육주제 심포지엄
2	총회 통합형공과
3	계절공과(겨울)
4	계절공과(여름)
5	계절공과 컨퍼런스
6	스마트플랫폼 기반 구축
7	새신자 교재
8	신앙훈련 아카데미
9	절기공과
10	홈페이지 및 앱, 웹진, 사이버교육센터 관리